

“安신당은 與에 효도” vs “더민주 3당 전략”

더민주-安신당 총선 주도권 싸움... 연일 비방전

安신당 공동위원장에 진보-한상진·보수-윤여준 부장

아권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연일 치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더민주가 안 의원 측에 대해 “구태 정치”, “여당에 대한 효도”라고 비판하자, 안 의원 측은 “더민주 3당으로 전략할 것”이라며 거친 비방전을 벌였다.

더민주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 측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 규모를 넘어선다고 한 데 대해 “교섭단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88억짜리 구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내달 15일까지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국고보조금 88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또 “과거의 선택이고 익숙한 구태”라며 “탈당한 분들이나 김 전 대표가 국가의 비전이나 국민의 삶에 응답하겠다는 내용, 신념 이런 것들이 있나”라고 따졌다.

안 의원 측은 더민주와의 연대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노선이나 정책 차이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당을 만들고 연대를 과거 행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여당에 효도하고 야당에 불효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 의원 측 문병호 의원은 불교방

송 ‘고성국의 아침저녁’에 출연, 아권 분열 필패론에 대해 “향후 지지도가 새누리당 30%, 신당 30%, 더민주 10%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신당이 양자대결하고 더민주 3당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당의 향후 세력화 전망에 대해서는 “패권적 친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아권 세력이 신당으로 다 모이고 있다. 손학규 전 고문만 오면 완성된다”며 “그래서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최근 제기한 친박·친노 대상 ‘표적공천론’과 관련해서는 “옛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다 보니 죽은 당이 됐다”며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인재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정치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의 창당 준비위원회가 진보-보수인사 공동 위

장 체제로 꾸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측 공동 위원장 몫으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영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보수 측 공동 위원장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이 직접 한 명예교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일 회동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학자로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캠프 국정자문단에서 활동하고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선평가특별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책은 안 의원이 직접 뽑고 상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을 윤 전 장관이 맡을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文 감사했다” 사실상 작별인사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가 끝까지 저에게 함께하자고 들이는 정성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작별을 알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 회 기자실을 찾아 “당을 떠나더라도 더 큰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더민주나 문 대표를 결코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목표(지역구) 기초·광역 의원들, 핵심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에게 동조해서 ‘함께 탈당하자’ 하시는 분들이 90%는 된다”면서 “하지만, 아직 시점은 정



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그는 “문 대표도, 조국 전 혁신위원도 박지원은 (공천제의 대

상)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안철수·천정배 신당 측에서도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 문제로 계산하거나 구차하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윤창현 광주시장과 30분가량 면담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정진욱 새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 安신당 합류

정진욱(새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 광주시 남구 출마예정자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신당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도 패권적 계파정치의 화신이 돼 가고 있다”며 “‘헬조선’ 절망의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면적·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서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부수어야 한다”며 “안철수 신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국민의 여망을 만드는 견직한 심부름꾼이자 밑거름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광주 북구 갑 지역구 선택은 정치적 승부수”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유정 광주시 북구 갑 출마예정자는 6일 현역인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지난 4월 25년간 당적을 정리했는데, 대법인 당시 열심히 일했지만 총선승리하고 정권교체 가는 길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오래 고민한 뒤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임영일 전 부구청장,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 선언

임영일 전 광주시 동구 부구청장이 6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청백리를 몸소 실천하는 행정가로 살아왔다”며 “지난해 동구청장 권한대행 당시 동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이는 청렴을 바탕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결과”라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중요한 시기에 (구청장) 남은 임기 2년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주민들이 잘 선택하리라 판단한다”면서 “교육은 교육자, 행정은 행정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 ‘15만 명품 동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의원 5명 安신당 합류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이은방, 문태환, 김동찬, 김옥자, 이정현(왼쪽부터) 의원이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도 양당 체제

문태환·김동찬·이정현·이은방·김옥자 더민주 탈당

아권 분열사태로 인해 일당 독점체제를 유지해오던 광주시의회도 양당 체제를 맞을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제1부위원장, 김동찬 제2부위원장, 이정현·이은방·김옥자 의원은 6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먼저 탈당한 김동철(광산구갑)·임내현(북구을)·권은희(광산구을)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시의원 7명 가운데 5명이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일부 기초의원들의 탈당은 있었지만, 광역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당 의원들은 “더이상 당 내부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기득권 사과의 벽을 허물고 창조적

파괴로 가기 위해 당을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흩어진 민심을 추스리고 아권이 단합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4대(2002~2006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뒤 처음 양당 중심구도로 재편되게 됐다.

이번 시의회는 의원 22명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1명, 천정배 국회의원을 따라 탈당한 1명을 뺀 2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다른 시의원들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탈당 여부 등에 따라 추가 탈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민주와 신당파를 중심으로 한 지형변화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

현역 20% 물갈이 기준 조정설 ‘모략’

더민주 탈당리서에 위기의식... 평가위 ‘달라질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잇따르면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의 ‘현역의원 20% 물갈이’ 기준 모수(母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당규에 최종 반영해 평가위의 평가대상을 현역의원 127명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공천배제 규모는 127명 중 20%에 해당하는 25명(지역구 21명, 비례대표 4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후 탈당리세가 이어지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나오면서 평가대상인 현역의원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6일 현재 탈당 국회의원은 모두 9명. 여기에 김성근 전라공천관리

위원장과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당 분위기가라면 현역 의원 탈당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애초 공천배제 대상 인원인 25명 수준에 가까워질 가능성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남은 현역의원 모두가 공천을 받게 돼 물갈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모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위는 기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동석 평가위 대변인은 “애초 설계에서 탈당과 불출마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준점은 127명이다. 일정한 기준을 잡아야 지속적으로 여러 평가방법이 있을 것이기에 (탈당 및 불출마 의원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에서 할 몫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채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